

# 나눔잔치로 정토세상 만들어요

## 광주 해룡사, 노인·군장병 6천여명 초청 위문



광주 해룡사는 초파일 수익금으로 관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거리에 연등은 사라졌지만 광주 해룡사(주지 혜우)의 '부처님오신날'은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함께하는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가자가 1000명이 넘는 대형행사를 연이어 여섯 번이나 치러야 한다.

5월 23일, 첫 번째 행사로 동구환경관리사업소 잔디밭에서 '동구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동구관내 노인 800여명을 초청한 이날 경로잔치는 연예인초청 공연과 점심공양으로 이어졌다.

경로잔치에는 예년에 비해 주변에서 함께하겠다는 단체도 나왔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개인별로 후원이 늘어 주체 측을 흥겹게 했다.

해룡사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답양 공수부대 군법대에서 순국장병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 나주 공군부대(7월1일), 답양 공수부대(7월 2일)에서도 장병위문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또한 나주시와 화순군에서도 100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해 위문잔치를 펼칠 계획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행사의 대부분은 해룡사가 4년째 연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매년 최소 경비가 500만원이 넘는 대규모 행사다. 모두가 부처님오신날 연등 수익금과 주지 혜우 스님이 모은 재래비, 법문비로 충당

한다.

해룡사는 신도가 많거나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4-5평 되는 법당 옆에 주지실, 공양간이 붙어있는 자그마한 사찰이다. 그런데도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든 대규모 나눔 행사를 잇달아 치루고 있어 더욱 뜻 깊다.

평소에도 교도소, 양로원은 물론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나누어주기 바쁜 혜우 스님(미타종 부종정)은 "출, 재가를 떠나 나눔은 좋은 수행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정토세계"라며 함께할 이웃을 찾아 나서기 바쁘다. 이렇게 해룡사의 부처님 오신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글·사진/광주=이준엽 기자

### 광주 법황사·전주 흥국사 개원

총지중이 전주와 광주 지역 포교 거점을 마련한다. 총지중은 효강 종령, 우송 통리 원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국사에서 연이어 현공불사나성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남구 구동에 위치한 법황사(주교 범수원)는 대지 36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가와 사택, 서원당이 배치됐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 흥국사(주교 밀공정)는 대지 307평 연면적 150평 지상 2층의 전통 한옥식 건물이다.

### 태고종 충북교구 방생법회



태고종 충북교구주무원(종무원장 월담)은 강원도 산골피해로 많은 죽음을 당한 동식물들의 극락왕생과 태고종 전승관의 원만한 건립 발원을 목적으로 5월 24일 강원도 양양 휴휴양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태고종 원로위원 보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생명의 아픔을 함께 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불자로서의 도리"라며 "전승관 건립에도 모든 종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충북교구는 법회 후 모금한 전승관 건립 기금을 총무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 서울 삼청동 칠보사

## 석주 스님 큰 뜻 잇는다



석주 스님이 임직했을 당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석주 스님을 추모하며 독경을 하고 있는 칠보사 신도들. 이들은 자비봉사단체인 '보현회'를 구성해 칠보사가 포교도량으로 자리 잡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삼청동 칠보사 하면 누구나 석주 스님을 떠올린다. 석주 스님은 누구나 인정하듯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산'이었다.

지난해 11월 임직할 석주 스님의 그늘은 아직도 칠보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칠보사를 방문하는 누구든 석주 스님 얘기를 꺼내고, 칠보사 다음 카페에는 아직도 석주 스님을 추모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칠보사(주지 선근)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석주 스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아니

을 세우고 문집도 간행할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일은 문종 차원에서도 함께 진행될 사업이다.

불교대학과 일요법회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불교대학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참선과 요가, 꽃꽂이 등의 문화강좌, 교리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특화해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일요법회는 신도들의 수행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포교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문을 닫은 칠보유지회 건

### 주차장 건립 수익금 모아 '석주 장학회' 추진 불교대학·일요법회 계획, 신형 포교 활성화

라 석주 스님의 뜻을 잇기 위한 작업이다. 그 변화의 출발은 주차장 건립이다. 이따금씩 사용될 뿐 빈집이나 마천가지였던 요사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년에 1300만원씩 구청에 내고 있는 유료주차장 비용을 아껴 '석주 장학회'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요사채 관리에 들던 연간 1000만원의 경비도 고스란히 석주 장학회 장학금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1년에 23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다. '석주 장학회'는 석주 스님 열반 1주기에 맞춰 발족시킬 예정이다.

칠보사는 석주 스님 부도탑과 비문

물을 불교대학과 일요법회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칠보사 총무 도홍 스님은 "유치원 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유치원 대신 불교대학과 일요법회를 통해 새로운 포교에 나서 재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보현회'가 매 주 네 차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감사원 불자회에게 법회장소를 제공하는 등 포교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또 중구등부 법회를 만들기 위해 인근 중·고등학교에 홍보물도 계속해 보내고 있다.

칠보사가 '포교도량'으로 불릴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02)732-1424

한명우 기자

### '5·18' 25주년...참회의 순례

#### 생명평화학박발순례단, 광주지역서 행사 가져



전남도청에서 망월동 묘역까지 행진하고 있는 순례단.

전국을 순례중인 생명평화학박발순례단(단장 도법)이 5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5·18 정신을 기리는 참회의 25배'를 하고 광주지역 순례에 들어갔다.

이날 순례단에는 YMCA, 녹색연합, 전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살레시요 수녀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등 지역 종교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탁발순례에 앞서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 평화로 새로운 문명사를 열고자 지난 1년 동안 1만 여리의 길을 걸었고 3만5000여명의 이웃을 만났다"며 "광주의 5월 정신을 배우기 위해 먼저 망월동까지 5·18순례를 떠난다"고 말했다.

이날 탁발순례단은 상생을 염원하는 의식에 이어 전남도청을 출발해 망월동 묘역까지 순례길에 올랐다.

이준엽 기자

### "호국사찰 역할 열심히 해야죠"

#### 원주 구룡사, 승병장 무총 스님 선양사업 추진

강원도 원주 치악산 구룡사가 구한말 승병장으로 활약한 무총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을 벌인다.

구룡사(주지 원행)는 무총 스님 사리탑을 조성하고 6월 3일 오후 3시 일주문 오른쪽 구룡사 부도군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사리탑에는 무총 스님이 1895년 원주 안창리에서 거병해 의병장으로 활동한 기록을 담게 된다. 이와 함께 구룡사는 올 가을 항일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 항일운동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룡사는 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호국사찰의 이미지를 살려 무총 스님을 비롯한 원주권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위패를 모실 전각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룡사는 지난 4월 110년 만에 처음으로 무총 스님과 항일독립운동을 한 79위의 영정에 대해 추모다례제를 지낸 바 있다.

한명우 기자

은석사 여래상 총남문화재 지정

천안 은석사 목조여래좌상이 총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또 은석사 아미타극락도와 아산 인취사 석조아미타 삼존불좌상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총정남도는 5월 2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한 달 동안 지정예고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지정된다.

한명우 기자

##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카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피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수신통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에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오가피에서도 수신통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지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통오가피의 저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목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래프에 매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 신상배양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오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가 수신통오가피와 허풍의 관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형호 교수 직접 제작한 분정다란을 드립니다.